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시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 독자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천리안: AEUM 하이텔: HBS3470

## 나의 의견

최근 들어 장기기증운동의 대 사회적 확산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모 달렌트의 장기기증 이후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장기 기증의 타당성 유무를 놓고 많은 시사비비들이 사회적 기류에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생명공양실천본부'를 설립 운영해는 일련의 일들은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다.

얼마전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단체장 간담회까지 가져 종교적 차이를 뛰어 넘어 장기기증이 범 국민적 확산 도모를 위한 여러가지 방향을 모색, 지속적으로 서로 협조할

## 뇌사자 장기기증 유가족 결정 분위기 편승보다 심사 숙고를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니 더할 나위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저어질까 심히 우려된다.

사람의 몸발는 것이 몇 억 겁의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불교의 진리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명의 소중함은 그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필연의 것이다. 물론 장기기증이 자신의 자의로 이루어진 결정일 경우는 그 정도에 달하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뇌사상태의 경우 대

부분 그 가족이나 친지를 그 측근들에 의해 장기기증이 결정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경우 자칫 주위의 여건이나 병원의 권유들에 의한 결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의학계의 발전을 기대해 보며 발전만큼이나 자연적인 것도 아쉽다고 소중한 것임을 장기기증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할 필요성을 주장해 본다.

주부모니터 안영희 (부산 범일동)

## 현대불교를 읽고

### 한글 가로쓰기 등 지면 산뜻 대중행복 이끄는 등불 기대

현대불교신문을 펴면 굵직하고 시원한 제자(題字)와 친근한 한글 가로쓰기를 첫눈에 보게 된다. 산뜻하고 편안한 불교 신문의 다양한 모습을 다룬 기사를 읽노라면 어느새 그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려웠던 경전이 쉬워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닫게 된다. 기쁘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는 민첩함도 읽는 이를 흐뭇하게 한다. 기사를 찾고 참조해내는 기자들의 노고가 떠오른다.

앞으로 '현대불교'의 역할

이 더욱 높아지면서, 가끔씩 보이는 오자가 없어지고 보다 세련되고 참신한 편집 기교를 갖추어서 신문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 줄 것을 믿는다.

현대불교 신문으로 불교가 거둔다, 불자가 더욱 성숙해지고 불법이 한층 위대해질 내일을 전망한다. 그리하여 친숙한 불교의 쉬운 가르침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 인류의 행복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현대불교'가 해내길 기대한다.

한명숙(천안 영성동)

### 생활속 수행방법 소개를 한국고승들 일화도 금급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정기 구독하는 독자입니다. 나날이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지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같은 범부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난이 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불교의 중흥을 위해 애썼던 고승들의 모습들을 지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길 바라며 이만 그칩니다.

이은출(경기 안양시 박달동)

## 왜 관자재 보살인가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은 범어 아바라키테스바라(Avaikitesvara)의 의역으로 관자재, 관세자재 등으로 한역하기도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낭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의 첫머리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닌 '관자재보살'로 되어 있다.

왜 관세음보살이 아닌 관자재보살로 번역되었을까.

서기 406년 구마라습 삼장이 번역한 법화경 제 25품에는 분명하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그 제목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관세음 대신 관자재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와함께 구마라습이 번역한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관세음보살로 시작되어 있다.

그런데 서기 649년 당나라 태종때 현장 삼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닌 '관자재보살'이라 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인의 문화정토의 바탕을 이루는 유가의 삼강오륜 정신이 불교에 반영된 것이다.

유가에서는 왕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자를 쓸 수 없는 휘명·휘자의 풍습이 있었고 당시 부처님 경



지 목 (승려사 스님)

## 당태종 이름 '이세민' ... '세' 자 기피 휘명명 '관음' 이라 줄여 쓰기도

전 번역사업에도 이같은 휘명·휘자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당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李世民)이었기 때문에 세상 세(世)자 쓰기를 기피하였고 태조의 치세 기간에 삼장에 의해 번역된 반야심경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닌 관자재보살로 번역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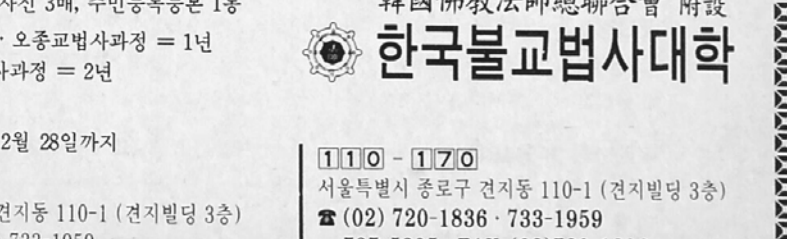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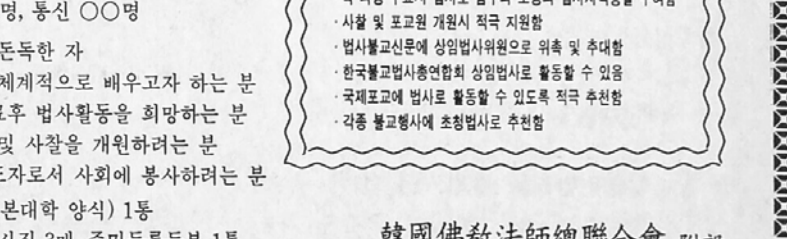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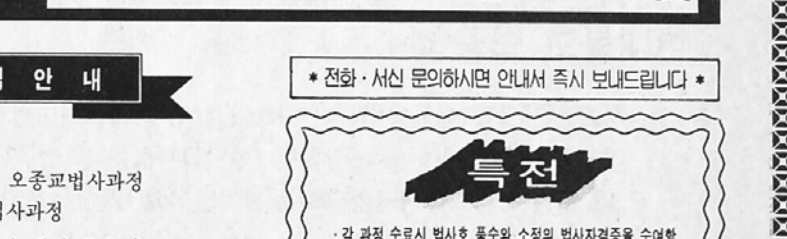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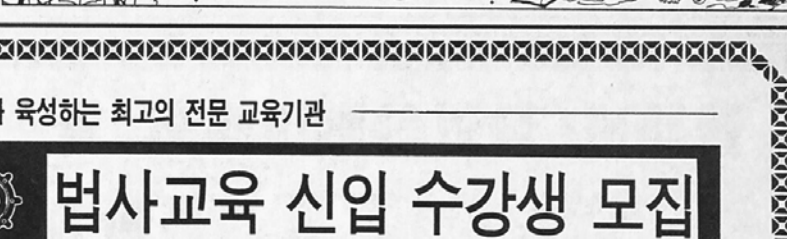
중국 도제장석기에도 당시 당나라 사람들이 세상 세자를 피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중국 불화대사전에 당나라 때 세상 세(世)자 휘명명인 관세음 줄여 관음이라 이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편으로 관세음은 세상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관찰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린다는 뜻이며, 관자재는 세계를 관찰하여 자유자재로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는 뜻에서 관세자재, 혹은 관자재라 하였다.

## 만화

# 법구경

악마의 꽃화살을 쏘아 버리고



### 이런 후 건강칼럼

## 술

### 중독자의 금주증상

<15>

술을 마시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잠상을 하고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술을 마시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만성적으로 마셔서 중독상태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만성적으로 중독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에 의해 갑자기 술을 끊어버리게 하면 의계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착각을 일으키거나 환각을 일으키며 헛소리를 하게 된다. 요령부득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정서의 기복이 심해져 생각이 망상에 이르러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아주 심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도 되는 아주 무서운 병증을 나타내는데 이를 의학적인 용어로 '절망'이라고 부른다.

환각·공포감 보여... 심하면 생명 잃기도

술뿐만 아니라 소위 급성 뇌중추근이라고 불리우는 뇌의 병변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약물의 중독현상에서 급단증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아주 무서운 증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은 술을 마시는 동안 발생하는 급성 정신증상으로 여겼으나 실은 만성적인 주중독환자

가 갑자기 술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금단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대개 5년이상 장기간의 음주습관이 있고 안주를 멀리하며 갈술만 마신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자극 받아 흥분을 잘하며 악몽을 꾸고 숙면을 못한다. 착각과 환각을 잘 일으키는데 몸에 별래가 거어가는듯한 느낌을

받는다는지 벽지의 무늬가 무서운 벌레처럼 보인다든지 하는 지각장애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흔히 환자는 이런 지각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오인한 나머지 도망가거나 싸우려고 하는 부적절한 행동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감각에도 이상이 있으며 냄새도 착각한다. 가스가 샌다고 예민해지기도 하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소리치기도 한다. 공포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더러는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의식은 혼란해져서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위 자남력의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심망현상은 통계에 의하면 5~15% 정도의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수치다. 알코올을 끊으려는 무리한 압박 때문에 오래 술을 마셔왔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할 때 생기는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심망상태는 술이 들어가면 일단은 낫는다. 그러나 술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반복되므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도 된다. 여기에서 적절한 치료란 입원을 통해 적절한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만성중독자의 무턱대고 금주는 심망의 위험이 있다.

## 금주

술을 끊으면 많은 만큼 근심 걱정도 따르지요

행여 불이나 홍수에 재산이 없을까

재물을 노리는 강도라도 들지 않을까

자식이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재산이란 건 모일땐 몰라도 흩어져 나갈때는 그 괴로움은 비할데가 없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재물이란 많으면 많은 만큼 근심 걱정도 따르지요

행여 불이나 홍수에 재산이 없을까

재물을 노리는 강도라도 들지 않을까

자식이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재산이란 건 모일땐 몰라도 흩어져 나갈때는 그 괴로움은 비할데가 없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물거품 같고 애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화살을 쏘아 버리고 저승 열라대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꽃을 쥐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짐착을 가지고 애욕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을 당한다

꽃을 쥐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짐착을 가지고 애욕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을 당한다

## 웬 소금이 그렇게 비싸?

좀 특별한 소금-인산죽염 한통(250g)값은 45,000원. 보통 소금 값의 무려 1,000배 가량으로. 세상에 이보다 비싼 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싼 소금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값을 하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인산죽염은 염분이 몸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180도 바꾼 전혀 새로운 개념의 건강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속의 독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응축시킨 무공해 소금 - 인산죽염. 이 비싼 소금을 드셔야 하는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시시오 (736-3171)

인산죽염은 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만듭니다.

150년을 잇는 '신로불이 건강'의 맥

# 仁山家

고객상담 736-3171

## 1995 학년도 법사를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 통신야간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모집안내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

###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풍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천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국제포교에 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함
- 각종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모집학부: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 모집인원: 출강 00명, 통신 00명
-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자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교육기간: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 원서교부 및 접수: 1995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 (02) 720-1836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